

제2회 서울 리모델링 페어



홍 명희
(주)코렘시스 대표이사

1. 머리말

리모델링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와 관련 기업들의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리모델링페어가 2002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하고 (주)코렘시스와 (주)젠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찬 리모델링 관련 자재 소개와 세미나 및 컨설팅 등으로 리모델링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써 성공리에 마쳐졌다.



이번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시공설계, 보수보강, 빌트인가전, 홈오토메이션, 기능성자재등을 선보이며, 리모델링페어를 찾은 3만여 관람객에게 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진들로 구성된 전문세미나 및 공개강의가 이어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국내 리모델링 최대 행사의 내용을 통해 우리시대 리모델링산업의 현주소와 진행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참가업체 분석

우선 리모델링 컨설팅 분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관하여, 공동상담컨설팅센터가 운영되었다. 이곳에는 금호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 월드건설, 신세계건설, 한국P&R건설, 탑스플랜드의 실무진들이 4일간 일자별로 나뉘어 대형건물 건축주 및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리모델링 전문기업인 코렘시스가 리모스의 브랜드로 가맹점들과 함께 무료 컨설팅 행사를 진행하여 중,소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주)씨디에스 리모델, 성현건설, 가나건축디자인, 리노플러스닷컴, 한국아트랜드, 성현건설등이 리모델링 시공과 보수,보강, 공장리모델링등 시공과 관련한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재,제품부문의 홈오토메이션 부문은 (주)LG전자가 홈네트워킹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가전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리모델링시 에어컨설비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코맥스의 사이버홈 시스템과 홈 오토메이션 제품들이 전시되었고, (주) 닷젠의 지문인식도어락 시스템도 선보였다.



건강과 환경부문은 (주) 미래차콜이 탈취효과와 음이온 방출효과로 대중에게 알려진 슛을 적용한 참숯초배지를 선보였으며, (주)에드텍은 전자파 차폐/흡수벽지를 홍보하였다. 그밖에도 (주)인트캠이 건축용 전자파 흡수 무기도료를 전시하였고, 비오파코리아(주)가 무공해 천연수지성분의 내추릴 천연수성 페인트를 소개했다.



기타 특수자재로는 유로인터내셔널(주)이 산화하지 않아 50년간 수명을 갖는 아쿠아텀 파이프 시스템을 선보였고, (주)알택코퍼레이션에서는 석재, 목재 및 빌딩 표면 재생관리 제품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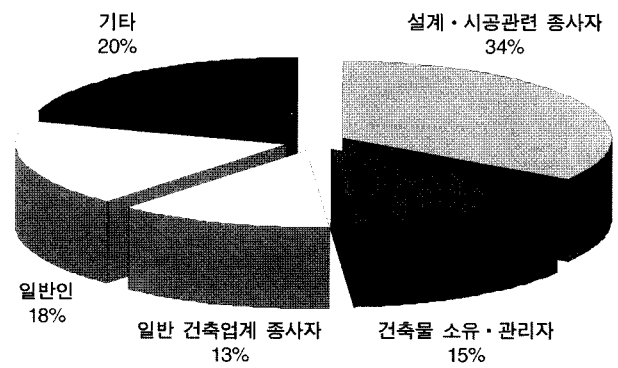
자재 전시와 관련해서는 홈오토메이션, 빌트인등 첨단제품들이 리모델링 적용 자재로써 일반 소비자 관람객들의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으며, 전문가 그룹으로 부터는 리모델링 의뢰시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수성 자재들이 관심을 모았다.

3. 참관객 분석

제 2 회 서울리모델링페어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리모델링 관련 컨설팅과 제품들은 관람객에게 유용한 정보로써 전달되어 리모델링에 대한 저변확대와 기업의 인지도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행사 기간동안 관람한 참관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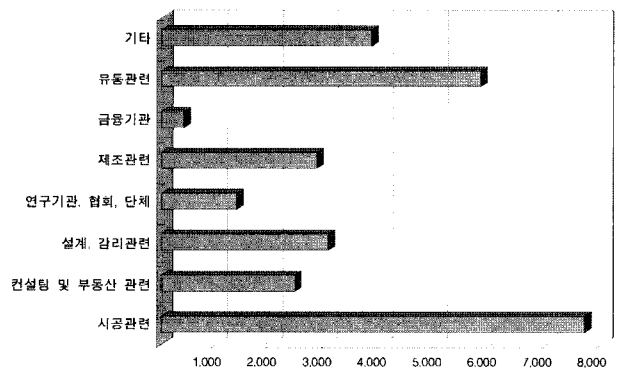
3.1 업종별 인원통계

NO	직종분류	인원	비율
1	설계시공관련	9,323	34.1%
2	건축물 소유, 관리자	4,002	14.6%
3	일반건축업계 종사자	3,468	12.7%
4	일반인	5,028	18.4%
5	기 타	5,519	20.2%
	관람객수	27,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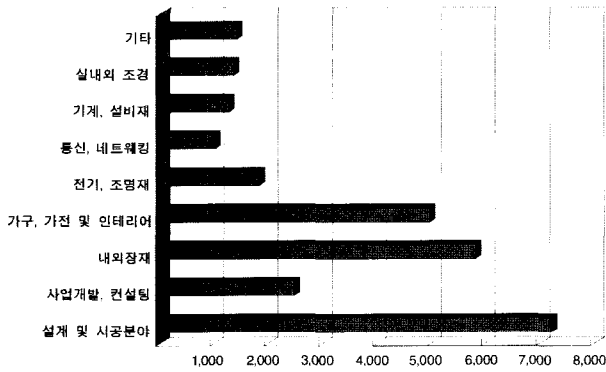
3.2 회사별 인원통계

NO	회사분류	인원	비율
1	시공관련	7,688	28.1%
2	컨설팅 및 부동산 관련	2,421	8.9%
3	설계, 감리관련	3,026	11.1%
4	연구기관,협회,단체	1,367	5.0%
5	제조관련	2,818	10.3%
6	금융기관	406	1.5%
7	유통관련	5,797	21.2%
8	기타	3,816	14.0%
	관람객수	27,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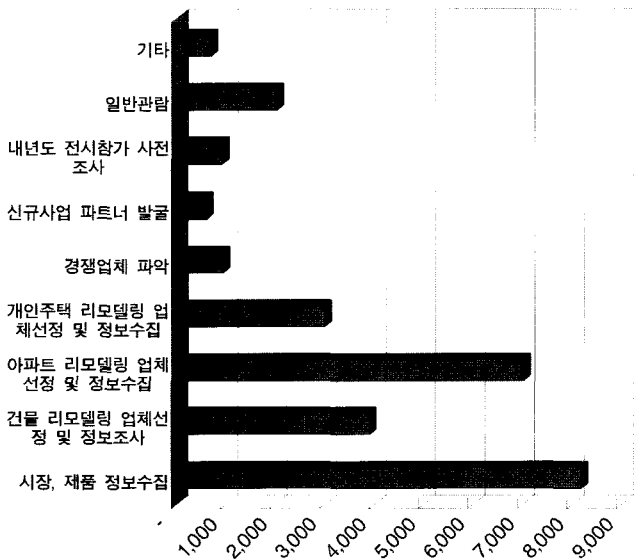
3.3 관심품목별 인원통계

NO	관심품목	인원	비율
1	설계및시공분야	7,203	26.3%
2	사업개발,컨설팅	2,476	9.1%
3	내외장재	5,824	21.3%
4	가구,가전,인테리어	4,959	18.1%
5	전기,조명재	1,831	6.7%
6	통신,네트워킹	1,009	3.7%
7	기계,설비재	1,265	4.6%
8	실내외 조경	1,357	5.0%
9	기타	1,416	5.2%
	관람객수	27,340	100.0%



3.4 관람목적별 인원통계

NO	관람목적	인원	비율
1	시장, 제품 정보수집	8,186	29.9%
2	건물 리모델링업체선정 및 정보조사	3,910	14.3%
3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선정 및 정보수집	7,019	25.7%
4	개인주택 리모델링 업체선정 및 정보수집	2,995	11.0%
5	경쟁업체 파악	953	3.5%
6	신규사업 파트너 발굴	611	2.2%
7	내년도 전시참가 사전조사	929	3.4%
	일반관람	2,030	7.4%
	기타	707	2.6%
	관람객수	27,340	100.0%



4. 세미나 부문

행사기간중 함께 진행된 세미나는 4일간 리모델링에 대한 이론, 시공사례, 파이낸싱과 구조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총 16명의 국내 리모델링 관련 최고의 강사진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개강의와 함께 실무 위주의 충실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중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운영선 박사는 2001년 현재 경상가격 기준으로 할 때 리모델링 시장은 10조 5천억원대 규모라고 말하고, 2005년에는 전체 리모델링 시장은 연평균 8.0%의 증가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중 주택부분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13조 4천억원, 민간비주택이 30%로 6조 3천억원, 공공비주택 부분이 1조원으로 4.8%를 차지하며, 주택부분은 향후 물량 면이나 성장률 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시장이라고 윤박사는 말하면서 재건축 수요의 성장 위축,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향후 리모델링 시장은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울시립대학교 송인호 교수는 "북촌 한옥리모델링 기법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센구조 연구소의 이원록 팀장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구조, 안전진단 부문에 대한 특수 기술등을 강의 하였다.

셋째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기술적인 부분의 투자와 축적,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역설했으며, 또한 기존 주택의 수명과 관련하여 구조물 보강기술 및 설비체기술의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합벽, 세대통합 등을 통한 증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법제의 탄력적인 적용과 보완이 필요하며, 규제중심의 정부 보다는 리모델링의 촉진자적 입장에서 밀어주는 정부의 역할

을 강조했다. 또한 신세계건설(주)의 이영수 과장이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리모델링"의 시공사례를 강의하였고, 국내 최초의 민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로써 "양평동 현대3차 아파트 리모델링"을 현대산업개발의 이선호과장이 발표하였다.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대형 리모델링 사례가 실무자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리모델링이라는 앞으로의 건축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발전적인 전문 세미나로써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리모델링페어는 새로운 건축문화로써 리모델링산업이 보다 양적, 질적 성장을 해나가길 기원하며, 리모델링 시장의 확대와 함께 명실공히 리모델링 시장을 대표하는 전문전시회로써, 앞으로도 리모델링 시공.설계.관련자재를 홍보하고, 국민적 인식저변을 확대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전망이다